

목숨을 잃은 거인, 동전 던지기,
그리고 엄청난 양의 증기

증기선 언슬로 호와 월터피크 관광안내

www.realnz.com

The logo for Realnz, featuring the text "Realnz" in a bold, sans-serif font. "Real" is on the top line and "nz" is on the bottom line, both in white. The logo is contained within a white circle that is set against a background of overlapping, semi-transparent red diamond shapes.

Real
nz

100년 넘게 계속된 운항...

호수의 숙녀

언슬로 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증기선 언슬로 호(TSS Earnslaw)는 '호수의 숙녀'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으며, 와카티푸 호수 주변의 사업체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100년 넘게 호수 위를 운항해 왔습니다.

기원: 언슬로 호는 1912년 더니든 소재의 선박회사인 J. McGregor and Co 사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선박 건조 입찰 계약을 20,850파운드에 따 내었으며, 언슬로 호는 뉴질랜드 철도망의 일부로 운항되었습니다. 제작을 마친 언슬로 호는 해체된 후 기차에 실려 킹스턴으로 운반되었고, 이곳에서 7만개의 리벳을 사용해 재조립되었습니다.

업무: 언슬로 호의 주된 업무는 화물 운송으로 갑판에 양 1,500마리와 소 30마리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언슬로 호는 외륜선인 '엔트림 호'와 '마운티니어 호' 그리고 스크루선인 '벤 로몬드 호'와 함께 고산 지대의 농장에 물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제: 1960년대 호수 주변의 진입로가 개선되며 언슬로 호의 이용이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실운영으로 언슬로 호는 폐기될 위기해 처하게 됩니다. 1969년 리얼 저니스가 언슬로 호를 임대해 선구적인 관광 사업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적인 수리를 통해 상갑판을 폐쇄형으로 그리고 기관실을 개방형으로 변경하고, 프롬나드 카페를 개장했습니다.

현재: 언슬로 호는 남반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상업용 여객 수송 석탄 증기선입니다. 운항을 시작한지 100년이 넘었으며, 현재에도 여름철 하루 14 시간, 1년 중 11개월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치

선상

순항 속도:

11노트

건조:

프레임 78개, 플레이트 140개,
리벳 7만개

선체 길이:

51m

무게:

337톤

보:

7.3m

흘수:

2m

보일러:

기관차형 연관 보일러 2개. 작동
압력: 6.5제곱센티미터당 73kg

석탄고:

각 7톤 수용 가능
(하루 두 차례 석탄 적재)

석탄 소비량:

시간당 1톤

증기장치:

3단 팽창식의 250 마력 증기
기관 2개

주갑판 / 휴게실:


건조 당시에 사용된 자생
카우리소나무 목재

승객 정원:


350명

노래 부르기 적합성:

매우 적합



건조중인 증기선 언슬로 호 ▲



화물 적재중인 증기선 언슬로 호 ▲



작업중인 언슬로 호의 화부들 ▲

배 우현의 모습



상갑판



주갑판



하갑판



증기선 언슬로 호

1. 산책용 갑판: 건조 당시에는 개방된 형태였으나, 1970년대에 바와 카페가 추가되면서 폐쇄형으로 변경
2. 기관실: 1970년대에 관광 유람선으로 개조되면서 승객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변경
3. 주갑판 / 휴게실: 아름다운 자생 카우리소나무 목재로 제작된 이곳은 한때 1등실 라운지로 사용
4. 선원 선실 갤러리: 건조 당시에는 선원의 선실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역사적인 이미지를 전시하는 갤러리로 사용
5. 조타실 / 함교: 언슬로 호가 처음 진수되었을 때 조타실은 개방형이었으나, 현재는 폐쇄형으로 변경
6. 윈치: 여전히 작동 가능하며, 배에 짐을 싣는데 사용
7. 석탄고: 각 7톤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하루 두 차례 석탄을 적재
8. 콘크리트 블록: 배에 석탄을 적재할 때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도둑맞은 처녀. 강한 불.

호수의 전설

와카티푸 호수의 독특한 모양은 욕망과 복수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거인의 구멍'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느 날 밤 거인 '마타우'는 한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마나타'라는 이름의 처녀를 납치해 달아났습니다.



와카티푸 호수 ▲



퀸스타운에서 바라본 와카티푸 호수 ▲

그녀의 연인인 '마타카우리'는 도망치는 거인을 추적한 끝에, 끊을 수 없는 줄로 거인에게 묶여 있는 '마나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타카우리'의 비통한 눈물에 줄이 녹아내리고, 두 연인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되돌아 온 '마타카우리'는 뜨거운 북서풍이 불 때 잠자는 거인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고통 속에 잠에서 깨어난 거인은 다리를 들어 올렸고, 불이 점점 더 뜨거워지며 땅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거인의 구부린 다리가 독특한 모양의 구멍을 만들었고, 열기로 인해 주변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 구멍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구멍 안에 남겨진 것은 거인의 심장뿐이었습니다. 거인의 심장이 물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으며, 지금도 거인의 심장박동에 맞추어 와카티푸 호수의 수면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수의 이름에 대한 수많은 기원 중
와카티푸아(Whakatipua)라는 이름이
가장 돋보입니다.
와카티푸아의 의미는...

"거인의 구멍"

리얼 저니스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관광과
자연보호의 선구자인 레슬리 허친스와 올리브 허친스에
의해 1954년 설립되었습니다. 밀포드사운드와
다우트풀사운드, 테야나우, 스투어트 섬, 퀸스타운 지역의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 0800 65 65 01
contact@realnz.com
www.realnz.com

**Real
nz**

언슬로 산
2,819m

도로

언슬로 호

* 루트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글레노키

벤 로몬드
1,748m

퀸스타운

프랭크턴

월터피크

세실피크
1,978m

마보라 호수

인버카길 방향

자세한 정보

와카티푸 호수

크기: 84km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긴 호수)

해발 고도: 해발 약 312m

수심: 평균 300m, 가장 깊은 곳의 수심 410m

수온: 빙하가 녹아 내린 물로 얼음처럼 차갑고 연평균 수온 12°C(53°F).
연중 수온 변화는 1-2도에 불과

야생 동물: 갈색송어, 무지개송어, 긴 지느러미 뱀장어, 연어, 얼룩무늬
가마우지, 검은부리갈매기, 청둥오리

움직임: 호수의 수면은 6분 간격으로 평균 7.5cm 가량 오르내리며, 때로는
최대 20cm까지 오르내림

수면이 오르내리는 이유: 주변 산들로부터의 풍압의 변화 때문에 '정상파'가
발생하기 때문

여행 거리: 퀸스타운에서 월터피크까지 언슬로 호를 타고 11km

남부 마오리

수렵과 채집

이 지역은 원예에 종사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마오리들은 퀸스타운과 글레노키의 다양한 지역들을 이동하며 식량과 포우나무(그린스톤)를 채집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700년대 후반의 마오리 정착지가 와카티푸 호숫가 주변에서 발견되었으며, 화덕과 모아새의 뼈가 월터피크 부근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

동전의 앞면 혹은 뒷면?

동전 던지기를 해서 얼마나 많이 이겨봤나요? 최초의 유럽인 정착민들의 운명은 동전 던지기로 결정지어진 듯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1850년대 말 윌리엄 리스와 니콜라스 폰 턴즐먼은 동전을 던져 호수의 어느 쪽에 정착을 할지 결정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골드러시와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퀸스타운 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반면 월터피크에 정착하게 된 니콜라스는 폭설과 가축 손실, 그리고 금전적 문제로 인해 결국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월터피크

이름의 기원

오늘날의 퀸스타운의 도로, 지역, 지형 등 많은 이름들이 한 남성의 가족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탐험가이자 측량사였던 윌리엄 길버트 리스는 퀸스타운 최초의 유럽인 정착민으로 이 지역 곳곳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세실피크와 이보다 약간 높이가 낮은 월터피크의 이름은 그의 아들인 세실 월터 리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지명인 프랭크턴 역시 아내의 이름인 프랜시스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정착과 번성

매켄지 가족

매켄지 가족은 1880년대 후반에 월터피크를 인수했으며, 건물과 대지에 대한 개선 작업을 신속히 착수했습니다.

후 매켄지는 고산지대의 양을 통제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등의 많은 획기적인 농경법을 이곳에 도입했습니다. 또한 농가 저택을 짓고 명성 있는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매켄지 가족은 이 지역에서 약 80년 동안 가축을 사육했으며, 이를 통해 사람이 살기 힘든 땅에서 번창하는 사업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전성기에 월터피크 농장은 170,000에이커 면적의 땅을 소유하고 양 4만 마리를 사육했으며 고용인의 수가 50명에 이르렀습니다. 월터피크 농장에서 생산된 메리노 양털은 1930년대 런던 양털 매매시장의 뉴질랜드와 호주산 양털 매매 부문에서 세 차례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권위 있는 웹블리 전시회에서 1등을 수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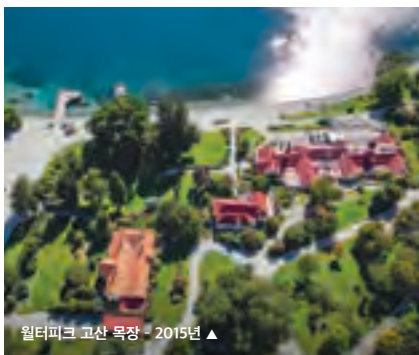
도전과 승리

미래 건설

휴 매켄지의 아들인 피터 매켄지 대령의 결혼 선물로 1908년 커널 농가저택(Colonel's Homestead)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저택은 1977년에 화재로 훼손되었으며, 이후 복원되었습니다.



윌터피크 커널 농가저택 화재 - 1977년 4월 ▲



윌터피크 고산 목장 - 2015년 ▲

정원 조성은 18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입종 나무인 플라타너스와 참나무를 심었습니다. 현재 이 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곳에 자생 카우리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정원은 서서히 발달되고 향상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안락함과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 이곳은 퀸스타운까지 노 젓는 배로 약 5-7시간 가량 걸리는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매켄지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지역 장로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양몰이견 ▲



메리노양 ▲



하이랜드 소 ▲



붉은사슴 ▲

현지 동물들을 만나보세요.

개

이곳에는 2종의 개가 기량과 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더콜리는 견종 중 가장 지능이 높고 순종적인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기차고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 보더콜리는 짖는 대신 눈빛으로 양을 돕니다. 반면 헌터웨이는 정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터웨이는 짖어서 양을 모는데, 가파른 지형에서 양떼를 몰다가 양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이상적입니다.

양

월터피크에는 3종의 양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메리노종은 오직 양털을 얻기 위해 사육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질 좋고 부드러우며 편안하기로 유명합니다. 독특한 뉴질랜드 품종인 롬니종은 고기와 털을 모두 얻을 수 있으며, 털이 굵어 직물원료로 사용됩니다. 코리데일종은 메리노종과 다른 장모종을 교배시킨 품종으로 고기와 털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농장주

19세기 중반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으며 호모 사피엔스종입니다. 땅과 연결되어 있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좋은 체격에 건강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와 사슴

이곳에서는 양만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 소는 살코기와 추위에 잘 견디기로 유명하며, 거친 환경에 이상적인 강인한 품종입니다. 붉은사슴은 사냥을 위해 호주를 거쳐 뉴질랜드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수천 마리의 야생 사슴이 서식하고 있으며 사냥꾼에 의해 사냥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수의 사슴이 상업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헌터웨이

털색: 검정색, 황갈색

장점: 민첩성, 높은 지능, 좋은 체력

수명: 12 - 14년

보더콜리

훈련기간: 훈련에 18개월 소요

주요 특성: 활기참, 뛰어난 운동신경, 영리함

메리노종

원산지: 현대 품종으로 스페인에서 처음 사육되기 시작

가치: 최고 품질의 양털

사육 목적: 양털 생산

코리데일종

사육 지역: 뉴질랜드, 호주, 미국, 파타고니아

사육 목적: 고기와 양털 생산

농장주

의사소통: 음성, 휘파람, 수신호를 사용해 개에게 명령 전달

식습관: 다양한 음식 섭취. 때때로 보리, 홉, 이스트, 물을 섞은 음료(맥주)를 마시고 힘을 낸

하이랜드 소

원산지: 영국 여왕의 뱀모럴 사유지

명성: 큰뿔, 털수룩한 붉은 털

생존능력: 산악지대에서 새로운 먹이를 찾아내는 기술

LAKE WAKATIPU



월터피크 토지 복원 사업

리얼 저니스는 월터피크 농장을 이루고 있는 커널 농가주택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 후 2014년 주요 보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월터피크와 인근의 센트럴 오타고 지역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비자생종 나무들과 잡초들을 155 헥타르 면적의 토지에서 제거했습니다. 또한 자생 관목들을 심고, 일반인을 위한 산책로를 호숫가를 따라 아름다운 비치 포인트까지 조성했습니다.